

스포츠동아

2013년 7월 22일 월요일
sportsdonga.com 10판

전문가 입체 분석 '홍명보호 48시간의 변화'

'생존 본능' 180도 달라졌다



홍명보호가 20일 호주와 동아시아컵 1차전에서 응집력과 투지, 조직적인 팀플레이를 선보이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중앙수비수 홍정호(왼쪽)가 상대 백과원에 앞서 공중볼을 따내고 있다. 상임 |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트위터@beanjun

“유럽파 와도 살아남겠다” 90분 내내 투지 땀 축구 대신 강한 압박·빠른 템포로 주도 선수들 협력 플레이 ‘한국형 축구’ 부활도



홍명보호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한국축구대표팀은 20일 호주와 동아시아컵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푹 패스를 날릴하던 기존의 땀 축구는 사라졌다. 강한 압박에 이은 짧고 간결한 패스로 경기를 지배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최근 A매치에서 보기 힘들었던 선수들의 투지와 끈끈한 응집력이었다.

●**눈빛, 자세 달라졌다** 호주전만 보고 홍명보호의 완성도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무엇보다 호주 역시 100% 컨디션은 아니었다. 호주대표팀 출격 오지크 감독은 “한국 선수들은 시즌 도중이라 체력이 아주 좋았고, 호주 선수들은 몇 달이나 경기를 치르지 못했기에 힘들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런 면들을 차치하고 홍명보호는 호주전을 통해 기대감을 심어줬다.

대표팀은 호주전을 사흘 앞둔 17일 소집됐다. 7명의 J리거들은 18일에 합류했다. 발을 맞출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P라이선스(지도자 교육 과정 중 최고 등급) 논문인 ‘48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언급하며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짧은 시간 대표팀은 180도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선수들의 생존본능과 경기에 임하는 자세, 눈빛을 언급했다. 정해성 경기위원장은 “경기하는 모습과 응집력, 분위기가 바뀐 게 큰 소득이다. 특히 선수들에게 ‘유럽파가 들어왔을 때도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이것이 움직임이나 집중력으로 나타났다”고 평했다. 신

대용 전 성남 감독도 “지금 모인 선수들 머릿속에는 분명 유럽파의 존재가 각인돼 있다. 내가 여기서 제대로 기량을 못 보이면 두 번 다시 대표팀 차출은 없을 거라는 절박함이 선수들에게 보였다. 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이 120%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다”고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평가는 큰 의미를 지닌다. 홍 감독이 동아시아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홍 감독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표팀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국내파의 분전이다”고 했다. 국내 선수들이 잘 해줘야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도 자극을 받고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뜻이다.

●**팀플레이 살아났다** 홍 감독은 경기 후 “수비적인 압박은 완벽했다”고 칭찬했다. 강한 압박과 활발한 움직임이 팀플레이로 이어졌다. 신 전 감독은 “한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볼 근처의 1~2명이 아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장면이 많았다. 이런 경우 볼을 받은 선수는 여러 옵션을 가지게 된다. 패스를 주는 선수도 편하고 받는 선수도 편하고 이런 축구를 보는 팬들도 즐거워진다”고 말했다.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주무기로 하는 홍 감독의 ‘한국형 축구’를 엿볼 수 있었다.

●**결정력 큰 문제 안 돼** 옥에 티는 골 결정력이었다. 21차례 슈트를 날리기도 호주 골문을 못 열었다. 공격적 선발로 나선 윤일록(서울)과 김동섭(성남)은 A매치 데뷔전이었고, 이승기(전북)와 고요한(서울)도 A매치 경험이 많지 않다. 골키퍼 출신 지도자들은 “문전에서 골을 넣으려면 득점에 대한 강한 욕심과 집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 홍 감독은 국내파 위주의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 특성상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찬스에도 골을 못 넣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고 자신했다. ▶**관련기사 2·3면**

윤태석 기자 sport@donga.com 트위터@Bergkamp08

이용대 올림픽 제패 기념 2013 화순-빅터 전국학교대학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제 2의 이용대를 꿈꾸며...” 셔틀콕 꿈나무 화순 총출동

초·중·고교 총 139개팀 1000여명 참가
오늘 하나운동스포츠센터서 팡파르

스포츠동아와 동아일보사, 한국초등학교 배드민턴연맹,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남도배드민턴협회, 화순군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이용대 올림픽 제패 기념 2013 화순-빅터 전국학교대학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22일부터 28일까지 화순 하나운동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망라해 총 139개 팀이 참가한다. 이 대회를 후원하는 화순군은 배드민턴 유망주들의 이상인 이용대 등 스타를 배출해온 한국 배드민턴의 요람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8년 전, 한 초등학교 2학년 소년이 작지만 아름다운 고장 전라남도 화순에서 처음으로 배드민턴 라켓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년은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건 세계적 스타플레이어로 성장했습니다.

올림픽 스타 이용대(25·삼성전기)가 힘차게 라켓을 휘두르며 꿈을 키웠던 화순에서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경연이 펼쳐집니다.

인구 7만 명의 화순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국제대회를 개최한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한국 배드민턴의 메카인 이곳으로 전국에서 1000여명의 셔틀콕 꿈나무들이 모입니다.

- 주최: 스포츠동아, 동아일보사, 한국초등학교 배드민턴연맹,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 주관: 전라남도배드민턴협회, 화순군배드민턴협회
- 후원: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남 화순군, 화순군 체육회
- 협찬: ㈜빅터IN

주키치 퇴출?...LG 새동력 찾기 올인

대체용병 물색...청백전선 2군들 테스트
현재용·최경철 8월 복귀 반가운 소식도



주키치

올해 프로야구 전반기 최고의 화제팀은 LG였다. 10년간 포스트시즌에 오르지 못한 LG는 전반기를 2위(45승31패)로 마쳤다. 1위 삼성(43승2무28패)과는 불과 0.5게임차. ‘형님 리더십’ 김기태 감독의 지휘 아래 LG의 ‘신바람 야구’가 부활했다.

성공적인 전반기를 보낸 LG는 21일 잠실 구장에서 자제청백전을 치르며 후반기에 대비했다. 김 감독은 “앞으로 30경기가 승부처다. ‘가을야구’를 위해 (후반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LG는 지난 2년간 에이스로 활약하다 올 전반기 부진했던 주키치의 대체 용병을 적극

물색하는 등 후반기 새동력 확보를 위해 인간힘을 쏟고 있다. 이날 청백전에 투수 정찬현, 신재웅, 이동학, 장진용과 야수 강승호, 김지광, 오상엽 등 2군 선수들을 불러 테스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전들의 체력이 떨어지거나 부상자가 나올 것에 대비해 이들의 기량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반가운 소식도 있다. 부상 중인 포수 현재용과 최경철은 나란히 8월 중순 1군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올해는 기필코 ‘유망점퍼’를 입겠다는 LG의 다짐이 다부지다. 정성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편집 | 최재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생명보험협회 심의명 제 2012-17408(2012. 8. 2) [12-A-CL-204]

Cigna 라이나생명

암보험 없는 61~75세를 위한

100세 보장 암보험!



암보험, 이제 나이 때문에 포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노후를 위한 암 대비! 라이나 실버암보험 (갱신형)

- 61세에서 75세 분들도 가입 가능한 국내 최초 실버전용 암보험
- 사시는 내내 걱정 없이 사시라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 위암·폐암·대장암 같은 각종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뇌암·골수암 같은 고액암도 빠짐없이 보장
-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갑상선암·유방암·기타 피부암도 보장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 080-015-990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가입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를 지급합니다.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 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